

# 更年期 障礙中 骨多孔症에 對한 文獻的 考察

曹永任 · 柳同烈\*

## I. 緒 論

女性에 있어서 更年期은, 卵巢機能의 衰退로 인하여 生殖能力을 가진 時期에서 非生殖期로의 轉換期<sup>14,15)</sup> 이 時期에는 기관의 部位 및 種類에 따라서 에스트로겐의 減少에 대한 適應性이 缺如되고, 이와 關聯하여 不隨意的 血管運動系 情緒的 性的 및 筋骨格系 症狀들을 나타내게 된다.<sup>16,17,18)</sup>

東洋醫學에서는 女性의 生長 發育 成熟 衰老가 腎氣의 盛衰에 의해 主導되며 天癸의 充盛 枯竭과 衝任의 通盛 衰微에 連繫되는 바<sup>1)</sup> <素問. 上古天真論>에 “女子.....七七歲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라 하여 49歲를 前後하여 腎氣--天癸--衝任脈軸의 生理的 衰退로 腎氣가 衰하면 精血이 不足해지고 陰陽의 氣가 모두 衰하여 臟腑를 溫養하고 溫煦시킬 수 없으므로 臟腑의 機能喪失이 招來되어<sup>3,37)</sup> 更年期 障礙가 發生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東洋醫學 古文獻上에는 更年期 障礙 특유의 症候群이 記錄되어 있지는 않아도, 이와 關聯된 病症은 藏燥症, 百合病, 梅核氣, 瘀血, 上衝, 奔豚 等이며 更年期 月經異常과 關聯된 病症은 天癸過期 年老血崩, 年老經水復行, 經斷復來 等이 있다. 한편 現代 中醫書에는 更年期綜合症, 經斷前後諸症 絕經期症候群 等の 病症으로 取扱되고 있다.<sup>4)</sup>

西洋醫學에서 更年期 障礙는 卵巢機能의 衰退로 야기된 視床下部--腦下垂體--卵巢軸의 機能失調가 原因이 되고,<sup>19)</sup> 이로 因하여 性호르몬, 脂質 및 脂蛋白質의 變化와 骨의 代謝에 중요한 影響을 미친다고<sup>20,21)</sup> 하였다

更年期에 나타나는 變化중, 骨多孔症은 骨의 化學的 造成에는 變化가 없고 單位容積內的 骨量만 減少하는 疾患으로 代謝性 骨疾患 中 가장 흔하며,<sup>20,5,4)</sup> 閉經期 前後에 卵巢를 除去한 女性에게 에

스트로젠을 投與한 臨床實驗에서, 骨多孔症의 發生이 적고 閉經期 以前의 性腺機能 患者에 있어 骨密度가 유의성 있게 減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閉經以後의 骨多孔症 發生은 卵巢機能의 衰退 및 에스트로겐의 缺乏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sup>22)</sup>

이에 著者는 女性에 있어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更年期 障礙 중, 점차 平均壽命이 延長됨으로 인해 閉經後의 삶을 살게되는 女性이 增加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骨多孔症에 대한 文獻的 考察을 통해 治療體系 形成에 若干의 知見을 얻고자 本 研究를 試圖하고자 한다.

## II. 本 論

### 1. 資料調查 및 研究方法

1). 資料調查: 韓醫學의 歷代 文獻인 內經에서부터 最近의 中國 및 韓國의 文獻에 이르기까지, 骨病에 관한 文獻 11種과, 更年期 障礙중 骨多孔症에 關聯된 文獻 20여種을 選定하여 調查 對象으로 삼았다.

2). 研究方法: ① 韓學的으로는 骨多孔症을 “腎主骨”이라하여 臟腑中 腎과 關聯을 두고 있으므로 ‘骨痿’ ‘骨極’ ‘骨痺’ ‘骨寒’ ‘骨熱’ ‘骨痛’ ‘骨傷證’ ‘骨病外證’ ‘骨絕證’ ‘腎虛腰痛’ ‘腎虛骨病’ 등 骨病에 대한 文獻을 研究하였다. ② 女性에 있어 更年期 障礙中, 骨多孔症과 關聯지을 수 있는 韓方文獻을 20여種 調查하였다.

③ 調查 文獻以外에 西洋醫學의인 部分은 考察篇에서 簡略하게 다루었다.

### 2. 文獻調查

#### 1. 骨病에 대한 文獻

##### 1) <素問 痿論><sup>6,29)</sup>

[骨痿] 腎氣熱則 腰脊不舉 骨枯而髓減 發爲骨痿. 腎主藏精 腎氣熱則 眞液枯渴矣. 腰者腎之腑 是以腰脊不能伸舉. 腎生骨髓 在體爲骨 腎氣熱而精液竭 則髓減骨枯而發爲骨痿也. 有所遠行勞倦 逢大熱而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婦人科學教室

渴 渴則陽氣內伐 內伐則 熱舍於腎 腎者水臟也 今水不勝火 則骨枯而髓虛 故足不任身 發為骨痿 腎氣主足 故膝腕樞縮如折去而不相隄鏈 筋筋縱緩而不能任用於地也。腰為腎腑 又腎脈上股內實脊屬腎 故腎氣熱則 腰脊不舉也。腎主骨髓 故熱則骨枯而髓減 發為骨痿。以腎痿言之 腎痿者骨痿也 腰為腎腑 腎氣熱故 腰脊不舉 腎主骨則骨枯而髓減 發而為骨痿也。

2) <素問 長刺節論><sup>6,29)</sup>

[骨痺] 病在骨 骨重不可舉 骨髓酸痛 寒氣至 名曰骨痺

3) <難經><sup>29)</sup>

[骨痿] 一損 損於皮毛 皮聚而毛落。二損 損於血脈 血脈虛少 不能榮於五臟六腑。三損 損於肌肉 肌肉消瘦 飲食不能為肌膚。四損 損於筋 筋緩不能自收持。五損 損於骨 骨痿不能起於牀。反此者 至於取病也。從上下者 骨痿不能起於牀者死。從下上者 皮聚而毛落者死。

4) <普濟方><sup>5)</sup>

[骨痿] 夫腎臟虛損骨痿羸瘦者 蓋骨屬於腎 腎虛損即髓竭骨枯 陽氣既衰 身體無以滋養 所以骨痿肌膚損 削而形羸瘦也 經曰 骨者髓之腑 不能久立 行即振掉 骨將應矣 此之謂也。凡骨髓虛實之應 主於腎膀胱 若其臟腑有病 從骨生熱即應臟 寒即應腑 故腎主骨髓 腎氣之餘 其氣虛即骨弱痿疼 倦而無力 其氣實即骨熱苦煩 津液內燥 當隨證以治之 夫骨髓之病應肝膽 若其臟腑有病 從髓生 蓋熱即應臟 寒即應腑 故髓虛者腦痛不安 身常清慄 髓實者身體煩燥 勇悍驚悸亦當隨證治之。

[骨極] 夫骨極之病 本於腎臟中風 腎主身之骨髓 風邪中其臟即傷骨 故為骨極 所謂骨極者 令人瘦削 齒苦痛 手足煩疼不可久立 臥不欲動是也 然骨有極虛寒 有極實熱 皆有腎受邪氣 若氣陰即虛 虛即寒 寒故面腫垢黑 腰脊痛不能久立 屈伸不利 其氣衰即髮墮齒痛 腰背相引而痛 甚即咳唾 氣陽即實 實即熱 熱故面色怡隱 膀胱不通 牙齒腦苦痛 手足瘦削 耳鳴面黑 是骨極之至也。宜隨證補瀉當治其微者 甚即足少陰氣絕而骨枯 髮無膏澤 是為骨先死 骨絕者不可治 其痛切而伸縮不得者 不過十日即死矣。

5) <華佗 中藏經><sup>29)</sup>

[骨痛] 陰邪入腎則 骨痛腰痛, 上引脊背疼

6) <千金方><sup>29)</sup>

[骨極] 骨極者主腎也, 腎應骨 骨與腎合。又曰以

冬偶病為骨痺。若腎病則 骨極 牙齒苦痛 手足疼 不能久立 屈身不利 身痺腦髓痿 以冬壬癸日 中邪傷風 為腎風 風歷骨故曰 骨極。若氣陰陰則虛 虛則寒寒 則面腫垢黑 腰脊痛 不健久立屈身不利 其氣衰則 髮墮齒痛 腰背相引而痛 痛甚則 咳嗽甚

[骨虛]: 骨虛者 痿疼不安好倦。凡骨虛實之應主於腎膀胱 若其腑臟有病 從骨生熱則應臟 寒則應腑。

7) <李杲 十書><sup>29)</sup>

[骨痿]: 腎氣熱生骨痿 故足不任身 諸痿 皆屬於上者 指病之本在肺也 故必先起於肺 然後熱轉入五臟 散為諸痿。

8) <東醫寶鑑><sup>12)</sup>

[骨寒] 黃帝曰 人有身寒 湯火不能熱厚衣不能溫 然不凍慄是為何病 岐伯對曰是 人者素腎氣勝以水為事 太陽氣康 腎脂枯不長一水不能勝兩火 腎者水也而生於骨 腎不生即髓不能滿 故寒甚至骨也 所以不能凍慄者肝一陽也 心二陽也 腎孤藏也 一水不能勝二火 故不能凍慄病 名曰骨痺是入當奪節也。

[骨熱] 骨熱者髓涸齒乾乃為骨熱病也。口前板齒乾燥者骨熱病也。其或骨間有熱以至四肢緩弱不舉 此即骨痿欲斯疾之有也。

[骨痿] 腎氣熱即腰脊不舉 骨枯而髓減發為骨痿 有所遠行勞倦 逢大熱而渴 渴即陽氣內伐 內伐即熱舍於腎 腎者水藏也 令水不勝火 即骨枯而髓虛 故足不任腎發為骨痿下 經曰骨痿者生於大熱也。

[骨痛] 凡人一身風淫濕滯血刺痰攻 皆能作痛至於骨之痿疼 或寒或熱入裏徹骨即倍怨千萬大不侔焉 病入於骨此勞極損傷之不可救藥者也。扁鵲曰疾在腠理湯瀉之所及也 在血脈鍼石之所及也 在腸胃酒醴之所及也 其在骨髓雖司命無奈之何矣 夫病在骨髓扁鵲以為難即骨髓有病病亦掇矣。痛風骨痛 虎骨散方主之 濕熱筋骨痛二妙散主之。

[骨傷證] 內經曰久立傷骨 又曰多食甘即骨痛而髮落。

[骨病外證] 靈樞曰 耳焦枯受塵垢者病在骨。

[骨絕證] 病人骨絕者齒黃落十日死。

[腎虛腰痛] 脈大者 腎虛腰痛也。腎虛者疼之不已者是也。房慾傷腎精血不足養筋陰虛悠悠痛不能舉者 六味地黃元或 八味元。見加鹿茸當歸木瓜續斷。腎虛腰痛宜青娥元加味 青娥元 壯本丹 局方安腎丸 補髓丹。陽虛腰軟不能運用 宜九味安腎丸 百倍丸 杜沖丸 補腎湯。腰軟者 肝腎伏熱治用黃柏方己。

9) <醫學入門><sup>30)</sup>

[痿]

[骨痿] 經曰: 有所勞行 大熱而渴 則陽氣內伐 熱舍於腎 水不勝火 骨髓空虛 色黑齒槁 名曰骨痿, 則腰膝與脊不舉 骨痿不能起於床者死.

慎物液同風痺治: 痺乃風寒濕合脚氣寒濕而成. 緩風邪深 手足肢體緩弱而痛 是知痛則爲風爲實 不痛爲痿爲虛.

風因外感宜發散痿屬內傷補血氣: 血虛者 四物湯合生脈散 加蒼朮 黃柏 牛膝 下補陰丸 氣虛者 四君子湯加 蒼朮 黃柏 黃芩 下鹿茸四斤丸加五味子 或五獸三匱丸. 又有瘀血妨得者 四物湯加參朮 黃柏 紅花.

或兼濕熱或兼痰: 有濕多者 有熱多者 有濕熱相半者 健步丸 四製蒼朮丸. 痰火起於手足之內者 二陳湯加蒼朮 黃柏 白朮 黃芩 竹瀝 薑汁.

又恐食積: 妨得升降

陽明滯: 減味清燥湯 如食全少者 白朮膏.

五痿旺時病易安: 隨各臟旺月 調補則易 間有挾寒者 五積散合獨活寄生湯 挾風者 大秦芫湯 何首烏丸.

天產作陽戒厚味: 助火發熱故也. 素不能淡薄者 搜風順氣丸.

10) <診療腰鑑><sup>13)</sup>

①. 骨寒證: 骨이 寒冷하며 或은 骨節이 攣痺하는 證을 骨寒證이라 한다.

內經에 依하면 人體가 寒冷하여 湯火나 厚衣로서 能히 溫煖하게 하지 못하지만 凍慄하지 않는 理致는 腎水로서 骨을 滋養하는 것인데 太陽의 氣가 衰하면 腎의 脂液이 涸竭되어 腎水を 滋養하지 못하므로 一水(腎水)가 能히 兩火를 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腎은 즉 水이며 骨을 生養하는 것인데 腎이 骨을 生養하지 못하면 髓가 充滿되지 못하므로 寒氣가 骨에까지 侵入하여 骨寒證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凍慄하지 않는 것은 肝은 一陽이며 心은 二陽이고 腎은 孤臟이니 一水가 二火를 勝하지 못하므로 凍慄하지 않는 것이고 骨이 寒冷하며 關節이 攣痺證을 惹起하게 되는 것이다.(素問 逆調論篇)

②. 骨熱證: 骨間에 熱이 있는 것을 骨熱證이라 한다. 骨間에 熱이 있으면 水液이 乾고하며 口齒가 乾燥하게 되는 것이다

③. 骨痿證: 腎氣가 熱하면 腰脊을 不舉하고 骨이 乾枯하며 髓가 涸竭되므로 骨痿證을 惹起한다.

遠行하여 勞倦하며 또는 大熱을 만나 燥渴하면 陽氣가 內伐하여 熱이 腎에 侵入하는 바 腎은 水를 藏하므로 水가 火를 勝하지 못하면 骨이 乾枯하고 髓가 虛해지므로 兩足이 無力해지며 骨痿證이 되는 것인데 骨痿證으로서 骨間에 熱이 있으며 四肢가 緩弱하면 難治에 屬하는 것이다.

11) <東醫 再活醫學科學><sup>6)</sup>

[腎虛骨病]

腎은 藏精 生髓및 養骨作用이 있으므로 腎虛하면 腎精이 不足해짐에 따라 骨과 髓가 失養되므로 마침내 骨病과 骨痿가 發生한다. <素問 逆調論>에는 “腎不生則 髓不能滿 故寒甚至骨也” <素問 痿論>에서는 “腎者 水藏也 今水不勝火 則骨枯而骨虛 故足不任身 發爲骨痿”라고 하면서 痺痿 厥과 같이 骨에 나타나는 病變의 根源은 腎虛임을 말하였다.

腎虛하게 되면 骨은 正氣의 滋養을 圓滑하게 받지 못하고 亢病能力이 低下되므로 쉽게 外邪가 侵犯한다. 侵犯된 外邪가 氣血과 相搏하여 瘀結을 이루면 骨痺와 骨瘤가 發生한다 <仙傳外科集驗方>에 “所謂骨疽 皆起于腎毒 亦以其根于此也.....骨實則骨有生氣 疽不附骨矣”라 하였고, 薛己도 骨瘤의 形成에 대하여 <外科樞要 卷三>에서 “勞傷 腎水 水能榮骨而爲腫也”라 하여 骨病의 病理的 變化의 根源은 腎虛에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腎精은 人體의 生長發育에 關與하는 基本物質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腎精은 虛弱해지거나 減少되며 老人일수록 骨病이 많이 나타난다. 이때문에 退行性 骨關節炎이라든가 骨多孔症등의 病因은 주로 “腎虛”하여 養骨할 精이 不足한 것이다.

2. 更年期 障礙中 骨多孔症과 關聯된 文獻

1) 普濟本事方<sup>28)</sup>

婦人天癸已過期 經脈不均 或三四月不行 或月再至 腰腹疼痛 素門云 七損八益 謂女子七七數盡而經脈不依時者 血有餘也 不可止之 但令得時不腰痛爲善 宜服此 當歸散.

2) 醫學綱目<sup>29)</sup>

[天癸過期]: 素門云 七損八益 謂女子七七數盡而經脈不依時者 血有餘也 不可止之 但令得時不腰痛爲善 宜服此 當歸散.

3) 婦人良方大全<sup>31,29)</sup>

[婦人天癸 過期方論]: 許學士云 婦人經脈過期不及 腰腹疼痛 或七七數盡而 月經下者 宜用當歸散治之. 愚按 前症若肝腎虛熱 用當歸散. 肝血虛熱 四物加柴, 梔, 丹皮. 肝火內動 小柴胡加 山梔, 丹皮. 肝火血燥 加味逍遙散. 脾經鬱火 加味歸脾湯. 肝脾鬱火 歸脾逍遙兼服. 肝腎虧損 歸脾六味兼服.

#### 4) 濟陰綱目<sup>34)</sup>

[論過期不止]: 產寶云 女子生於申 申屬金 陰中有陽 故女子得七數. 女以血為主 七七則卦數已終 終則經水絕 衝任脈虛衰 天癸絕 地道不通 而無子矣 或勞傷過度 喜怒不時 經脈衰微之際 又爲邪氣攻衝 所以當止不止而崩下也. 許學士云 婦人經脈過期不止 腰腹疼痛 或七七數盡而月經下者 宜用當歸散治之.

#### 5) 女科經綸<sup>32)</sup>

[婦人天癸過期不止]: 許叔微曰 婦人天癸已過期 經脈不均 或三月四月不至 或一月再至 腰腹疼痛. 經云七損八益 謂女子七數盡 而經不依時者 血有餘也 不可止之 但令得依時 不腰痛爲善 宜服當歸散.

#### 6) 葉天士女科<sup>33)</sup>

[四十六七經證]: 婦人四十六七歲 肝腎二經 氣血虧損 脇脹作痛 或頭昏目眩 憎寒壯熱 或偏身作痛 經閉不通 或出盜汗 寢成癆瘵 補肝煎 主之.

[四九五旬經證]: 婦人二七而天癸至 七七至而天癸竭 此其常也. 乃四十九五十歲 天癸猶不竭 而月經仍舊 依期而行 不見他證者 血有餘也 不可用藥 止之. 若天癸已過期 經行不均 若三四月不行 或一月再至 而腰腹疼痛者 宜服當歸散.

[五旬以後經證]: 婦人七七四十九歲 天癸已斷 若五旬以後 而月經復行 或漏下不止 腰腹疼痛者 但當察其有熱 無熱 有熱者 宜子芩丸 無熱而血虛者 宜益陰煎 若血去過多 熱隨血去 衝任傷損 而爲漏 爲崩 腹痛寒熱者 宜茱萸湯 肝脾傷損 血不歸經者 宜歸脾湯 兼服逍遙散.

#### 7) 中醫婦科學<sup>35)</sup>

婦女一般在七七之年 月經終止 稱爲絕經 或經斷 部分婦女再絕經前後 隋伴出現 一系列的症狀與體徵 如月紊亂 眩暈耳鳴 烘熱汗出 面紅潮熱 煩躁易怒 或面目肢體浮腫 尿頻失禁 腰膝痠軟 肢冷便溏等 各種症狀 稱爲經斷前後症候 亦稱經斷前後諸症 西醫稱爲更年期綜合徵. 本病症狀 往往三三兩兩出現 表現有輕有重 大部分婦女 絕經期無名顯症狀 母須治療 小數婦女症狀明顯 甚至嚴重影響工作和生活 其症狀

持續時間 有短有長 短則數月半數 長可達數年之久.

#### 8) 古今名方<sup>35)</sup>

二仙湯: 溫腎陽 補腎精 瀉腎火 用于陰陽俱虛 虛火上亢症現 頭昏乏力 腰痠腿軟 體倦畏寒 口乾心煩等 治療更年期高血壓 及更年期綜合證 能改善症狀 降低血壓 對腎炎 腎盂腎炎 尿路感染 閉經等現有腎虛火旺證候者 亦可以此方爲基礎 進行加減治療.

#### 9) 臨床婦產科學<sup>7)</sup>

韓醫學의 概念에 依하면 婦人의 閉經期 前後는 腎氣의 衰退로 因해 衝任二脈이 虧損하여 天癸가 竭하기 때문에 臟腑經絡이 濡養 溫煦받지 못하게 되고 그結果 眞陰이 虧損되어 陽을 制約할 수 없기 때문에 陰陽의 平衡失調를 惹起하여 흔히 '腎陰虛'와 '腎陽虛'의 症狀이 出現하게 된다. 동시에 水가 木을 養하지 못해 肝氣鬱結의 症狀이 出現하든가 또는 腎陰虛 때문에 心陽을 滋養할 수 없는 데에서 心腎不交의 症狀이 出現하는 境遇가 많다.

#### 10) 診療要鑑<sup>13)</sup>

[老年行經]: 婦人이 七七數 卽四十九歲가 되면 斷經이 되는 것인데 每月에 定期的으로 行經하며 痛症이 없는 것은 血이 有餘한 所致이니 病이 아니다 강제로 그치게 하지 말것이며, 經脈이 不調하여 三四個月에 一次씩 行하기도 하고 或은 一個 月에 수차 行하기도 하며 或은 經水가 過多하거나 腰腹이 疼痛하면 當歸散을 쓴다.

#### 11) 標準 漢方婦人科<sup>8)</sup>

[更年期]: 成熟期가 끝나면 卵巢가 점차 萎縮되어 排卵이 不規則하게 되고 黃體形成도 充分하지 않아 모든 生殖器官이 衰弱해지므로 月經이 점차 廢止된다. 卵巢의 內分泌失調에 따라 여러가지 症狀이 나타나는데 外性器의 萎縮이 있을 수도 있고 皮下脂肪의 沈着이 著名할때도 있고 月經週期와 持續 또는 量이 고르지 않을때도 있고 血管神經의 障礙에 따라 瞬間的인 熱感 逆上感 冷感 發汗 心悸亢進 心臟部의 壓迫感 또는 쥐어짜는 感이 있을 때도 있다. 精神도 變化가 와서 憂鬱해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며 頭痛 尾骨痛 또는 알 수 없는 神經痛 같은 것이 있을 때도 있다. 이러한 症狀이 40-50歲 사이에 가장 많다.

#### 12) 醫林<sup>9)</sup>

[更年期 證候群의 辨證論治]: 婦人들은 50歲가 가까와지면서 腎氣가 점점 衰하여 衝任이 虛하고 天癸(여기서는 卵子를 가리킴)가 점점 적어지고

月經도 점차로 絶하게 되며 이에 따라 生理的 變化도 激하여 一部 女性은 適應치 못하고 陰陽二氣의 均衡을 잃으며 目眩 耳鳴 煩燥易怒(胸이 熱苦하여 不安感이 생겨서 易怒함) 洪熱多汗(蒸狀汗이 出) 五心煩熱 怔忡健忘 失眠多夢 口舌乾燥 腰膝산 軟(腰에서 足에 걸쳐 나른하며 弱하다)증이 나타나며 또 精神不振 顔色이 黯하고 蒼蒼하다 寒氣가 들고 四肢가 冷하다 眼臉의 浮腫 便糖尿類 稀白한 帶下등의 증이 나타난다

13) 圖解臨床婦人科學<sup>10)</sup>

更年期는 實際的인 閉經에 隣接해 있는 數年間을 언급한다 그동안 婦人은 점차 生産能力이 減退되고 肉體的 心理的 變化가 나타난다

症狀) 1 hormone의 變化:estrogen生産이 減少

2 性器의 萎縮

3 上熱感

4 性慾喪失

5 性交痛

6 焦燥

7 不眠

8 不安

9 憂鬱

10 疼痛

11 頭痛

12 排尿切道

13 失禁

14) 漢方婦人科學<sup>1)</sup>

更年期가 되면 卵巢의 機能이 衰退하여 女性生理的 象徴이라 할 수 있는 月經이 閉止되고 心身兩面에 여러가지 違和症狀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更年期障礙라고 말한다. 高度의 障礙는 病的現象이므로 治療를 要한다.

[更年期의 肝氣鬱逆症]: 閉經期가 되어 衝任脈이 衰退하면 腎虛火動이 되어 肝氣를 衝動하기 때문에 肝氣가 橫逆하여 他장기에도 病辨을 招來한다. 그 症狀으로는 眩暈 頭痛 顔面紅潮 多汗 耳鳴 心悸亢進 不眠 不安 肩痛 腰痛 神經痛 등이다.

15) 東洋醫學叢書<sup>10)</sup>

[絶經前後諸證]: 婦人在絶經前後 腎氣漸衰 衝任二脈虛衰 天癸漸竭 月經將斷而至絶經 生殖能力降低而至消失 此本是婦女正常的生理變化 但有些婦女由于素體差異 及生活環境等的 影響 不能適應 階段的生理過度 使陰陽二氣不平衡 臟腑氣血不相協調 因

而出現 一系列證候.

本病以腎虛爲主 因偏于陰虛或偏于陽虛 或陰陽兩虛而出現不同證候 并可累及心,肝,脾.

① 腎陰虛: 天癸屬於陰精 天癸漸竭 腎陰便見不足 素體陰虛 或數脫于血 多產房勞者 在此期則可出現腎陰虧虛 陽失潛藏之證. 若腎水不能上濟心火 可致心腎不交, 又腎陰不足以涵養肝木 或情志不暢 鬱結化熱 煩燥眞陰 可致肝腎陰虛 肝陽上亢.

(主要證候): 頭目暈眩 耳鳴 頭部面頰陣發性烘熱汗出 五心煩熱 腰膝痠疼 或月經先期或先後不定 經色鮮紅 量或多或少 或皮膚乾燥 搔癢 口乾 大便乾結 尿少色黃 舌紅少苔 脈細數.

(治法): 滋養腎陰, 佐以潛陽.

(方藥): 左歸飲(<景岳全書>)加 制首烏,龜板.

② 腎陽虛: 絶經之期 腎氣漸衰 若素體陽虛 或過用寒涼及過度貪涼取冷 可致腎陽虛憊. 若命門火衰而 不能溫煦脾陽 或勞倦過度 耗損脾陽 也可出現脾腎陽虛之候.

(主要證候): 面色晦黯 精神萎縮 形寒肢冷 腰膝痠冷 納呆腹脹 大便溏薄 或經行量多 或崩中暴下 色淡或黯 有結 面浮肢腫 夜尿多或尿頻失禁 或帶下清稀 舌淡 苔薄白 脈沈細無力.

(治法): 溫腎扶陽, 佐以溫中健脾.

(方藥): 右歸丸合理中丸(<傷寒論>).

3. 骨多孔症의 辨證施治에 對한 現代 中國 및 韓國의 文獻

1) <中醫 骨病學><sup>38)</sup>

①. 脾氣虛型: 飲食不節하여 脾胃를 損傷하여 오래되면 脾胃의 機能이 점차 衰弱해져서 水穀精微의 化生과 氣血의 生長에 影響을 미쳐 內로는 五臟六腑를 調節하지 못하고, 外로는 營衛經脈을 營養하지 못하여 나이가 들면서 體弱하고 肢體가 無力하여 움직이지 못하여 骨多孔症이 發生한다. 處方으로는 蓼苓白朮散 加減을 使用하되 飲食不消하고 胃脘部가 不快한 자는 山楂,厚朴,陳皮를 加한다.

②. 腎陰虛型: 腎은 精을 主管하여 骨을 充實하게 하는데 腎陰이 不足하면 骨이 充滿하지 못하여 骨格이 酸痛하고 甚하면 骨折이 招來된다. 治法은 마땅히 滋陰壯骨하여야 하는데 左歸丸加減을 使用하고, 陰虛火旺之症이 明顯한 者는 知柏地黃丸을 合用하고, 또한 鱉甲,鹿茸,紫河車 등을 加하여도

좋다.

③.이 두가지 型 以外에도 오래 病床에 있으면 腎氣를 損傷하고 氣血虧虛하여 衛氣가 不固하게 되어 外邪가 侵入하면 점차 本病이 發生한다.

2) <中醫 傳統 康復 醫學><sup>37)</sup>

骨粗鬆症으로 인한 腰背酸痛, 兩膝酸軟이 腎精 不足에 起因한 것이므로 腎陰虛型和 腎陽虛型으로 分類할 수 있다.

①.腎陰虛型: 腰背酸痛, 兩膝酸軟의 主症以外에 五心煩熱, 升火烘熱, 口燥舌乾, 舌紅乾剝, 脈細數無力 등의 兼症이 나타난다. 마땅히 壯水之主하고, 左腎의 元陰을 培養하여야 하며 左歸丸을 使用하고, 陰虛火旺의 症勢가 나타나는 者에게는 大補陰丸이나 大造丸을 使用한다.

②.腎陽虛型: 畏寒肢冷, 面目虛浮, 性慾減退, 大便溏薄, 舌淡胖嫩苔潤, 脈沈細 등의 症狀이 腰背酸痛, 腰膝酸軟과 함께 나타나므로 이를 鑑別하여야 한다. 腎陽虛者에게는 右歸丸을 使用하였고, 만약 陽絕肢冷, 少氣減食, 腰疼脚痺, 舌淡脈遲者는 의당 壯元氣하고 益陽寧하고 下氣消食해야 하며 鍾乳丸을 使用한다. 이미 骨折이 發生한 患者에 있어서는 消瘀接骨藥膏을 外敷하며 동시에 健步虎潛丸을 內服한다.

3) <常見病最新療法><sup>40)</sup>

①.腎陰虛型: 腰膝酸痛 或 關節酸痛以外에 急躁易怒, 眩暈耳鳴, 少寐健忘, 煩熱盜汗, 髮脫齒搖, 舌乾而乾少苔, 脈細數 등의 症狀이 隨伴된다. 마땅히 調補肝腎, 滋陰壯骨해야 하며 保險煎加減(熟地黃 10g 生地黃 天門冬 麥門冬 玉竹 桂圓肉 각 10g 牛膝 茯苓 山藥 鱉甲 龜板 각 15g)을 使用하고, 顏面紅熱汗出 大便乾結者는 黃芩 山梔 黃柏 知母를 각각 10g씩 加味하고, 心悸少寐者는 生龍骨 牡蠣 각 20g 合歡皮 夜交藤을 각 6g씩 加味한다.

②.腎陽虛型: 腰膝酸軟無力, 脛酸或足根痛 등의 主症以外에 肢冷畏寒, 面色蒼白, 面足虛浮, 夜尿頻多, 尿後餘瀝或失禁, 舌淡伴, 苔潤, 脈沈細而弱 등이 나타난다.

腎陽虛型에는 溫補脾腎하고 溫陽壯骨하여야 하는데 處方으로는 右歸丸加減을 이용한다.(토 絲子 當歸 山茱萸 각 15g 枸杞子 鹿角膠 杜沖 仙茅 각 10g 肉桂 制附子 각 12g), 만약 骨痛節重하고 陰虛寒濕痺者는 川斷 牛膝 10g 羌活 獨活 각 20g으로 通痺止痛한다.

③.腎陰陽兩虛型: 病勢가 緩慢하게 發生하고 腰背疼痛이 夜重日輕하고 或背部肌肉僵板하거나 或은 骨折되고 下肢痿軟少力하고 足根痛, 髮脫齒落, 耳鳴心悸, 舌淡苔白, 脈沈或尺脈弱 등이 수반되는 것으로 鑑別하여야 한다. 治法은 補益肝腎하고 滋陰壯骨해야 하는데 處方으로는 虎潛丸加減을 使用한다.(龜板 10g 知母 黃柏 각 12g 熟地黃 白芍藥 각 15g 鎖陽 10g 陳皮 補骨脂 骨碎補 牛膝 각 15g 自然銅 透骨草 牛骨風 乾薑 각 10g), 熱象이 있는자는 乾薑 鎖陽을 去하고, 面色萎黃 乏力心悸 脈細弱者는 黃耆 丹蔘 鷄血藤을 加한다.

5) <東醫 腎系學><sup>5)</sup>

만약 腎氣有熱하면 骨이 乾枯하며 髓가 枯渴되므로 骨痿가 되고 腰背가 痠軟하여 直立하기 어렵고 下肢가 萎弱無力하여져서 骨折도 잘 일어나며 骨石化症 骨髓硬化症등이 續發되기 쉬우니 이는 熱邪가 內伐하고 腎水가 枯渴되고 火가 勝하여 骨이 乾枯하고 髓가 虛해져서 骨石化 혹은 骨髓가 硬化하는 것이다.

6) <東醫 再活醫學科><sup>6)</sup>

①.腎陽不足型: 腎陽이 不足하면 骨이 寒冷하고 骨節이 擊痺하며 化生하지 못한다. 患部가 濕冷하면서 水腫 汗毛脫落하고 指甲이 脆弱하다. 形寒肢冷 神疲倦怠 面色蒼白 腰膝痠冷 四肢痿軟不用등의 症狀이 있고 舌淡苔白하며 脈은 沈細無力하다. 老人體衰한 경우 잘 나타난다.

治法은 補腎壯陽하고 處方은 補腎丸 或은 右歸丸에 加減한다

②.腎陰不足型: 腎陰이 不足하면 腎이 骨을 生養하지 못하니 髓가 充滿되지 못하여 즉 腦髓가 空虛해져서 나타난다. 또 血液은 全身의 組織과 機關을 순행하는 바 血液中の 惡血이 骨髓에 착상하거나 運行이 저塞하면 發症하고 또한 濕痰物이 骨緣에 結合하면 本病이 生한다.

患部가 發熱作痛하고 關節強硬등의 症狀이 있다 形體가 消瘦하면서 腰膝痠軟 健忘失眠 眩暈耳鳴 五心煩熱 盜汗觀紅 咽乾唇燥등이 있고 舌紅少苔하며 脈은 細數하다 臟腑失調과 호르몬의 障礙시 잘 나타난다.

治法은 滋陰補腎하고 處方은 六味地黃丸 或은 左歸丸에 加減한다.

③. 氣血兩虛型: 患部の 腫脹과 壓痛, 少氣懶言 四肢痿軟 乏力自汗 面色蒼白 心悸失眠등의 症狀이

있고 舌淡苔白하며 脈은 細弱하다 營養不良으로 인한 境遇가 많다.

治法은 補益氣血하여야 하고 處方은 八珍湯, 理氣補血湯에 加減한다.

④. 風邪偏勝型: 患部가 腫脹하면서 紅斑이 나타날 수 있다 流注性 關節腫痛을 호소하고 밤보다는 낮에 甚하다. 關節의 屈伸이 困難하고 痠軟無力하다 舌苔가 薄白하고 脈은 浮하다.

治法으로 去風通絡하고 處方으로는 防風湯이나 如意通聖散에 加減한다.

### III. 考 察

韓醫學에서는 女性의 生長 發育 成熟 衰老가 腎氣의 盛衰에 의해 主導되며 天癸의 充盛 枯竭과 衝任의 通盛 衰微에 連繫되는 바<sup>1)</sup> <素問. 上古天真論>에 “女子.....七七歲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라 하여 49歲를 前後하여 腎氣--天癸--衝任脈軸의<sup>2)</sup> 生理的 衰退로 腎氣가 衰하면 精血이 不足해지고 陰陽의 氣가 모두 衰하여 臟腑를 溫養하고 溫煦시킬 수 없으므로 臟腑의 機能喪失이 招來되어<sup>3,35)</sup> 更年期 障礙가 發生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女性에 있어서 更年期는, 卵巢機能의 衰退로 인하여 生殖能力을 가진 時期에서 非生殖期로의 轉換期로 이 時期에는 여러가지 內分泌學的 身體的 및 精神의 變化가 나타나게 된다.

更年期에 나타나는 症狀은 一般的으로, 卵巢機能 低下에 의한 호르몬 缺乏이 오고 이로 인한 紅潮 盜汗을 特徵으로 하는 血管運動系 症狀과, 精神集中力의 減少, 意慾喪失, 不安定, 固執, 憂鬱, 神經衰弱 및 感情의 變化 등의 情緒의 障礙, 性慾 減退, 性交痛 등의 性的 症狀, 그리고 筋肉의 強度가 弱화되고 韌帶는 無力性이 增加하여 腰痛, 肩胛痛, 四肢痛 및 關節痛 등의 筋骨格系 症狀으로 大別할 수 있으며<sup>16)</sup> 更年期 女性의 50%에서 症狀이 뚜렷하며 그 중에서 25%가 醫學的 治療를 要할만큼 심한 症狀을 보인다. 특히 오랜기간의 에스트로젠 減少와 관련된 閉經期 後期 症狀인 性交痛, 尿道炎, 動脈硬化性 心血管疾患, 骨多孔症은 臨床上 큰 比重을 차지한다.<sup>20)</sup>

東洋醫學 古文獻上에는 更年期 障礙 特有의 症

候群이 記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와 關聯된 病症은 藏躁症, 百合病, 梅核氣, 瘀血, 上衝, 奔豚 等이며 更年期 月經異常과 關聯된 病症은 天癸過期 年老血崩, 年老經水復行, 經斷復來 等이 있다. 한편 現代 中醫書에는 更年期綜合症, 經斷前後諸症 絕經期症候群 等の 病症으로 取扱되고 있다.<sup>4)</sup>

更年期 障礙는 腎虛가 主된 病症이나, 臨床上 腎虛型和 肝氣鬱結型 두가지 病症으로 볼 수 있으며 腎虛型에는 肝腎陰虛, 心腎陰虛, 脾腎陽虛가 있고 氣滯型에는 肝氣鬱結 心脾兩虛 肝火上炎 肝風內動 등이 있다. 月經異常型에는 肝鬱脾虛와 腎虛 肝旺으로 나눌 수 있는데 肝鬱脾虛證은 다시 肝鬱氣滯 氣滯血瘀 脾虛不攝으로 細分할 수 있다.<sup>7,1,35,11)</sup>

이중 여기에서 다루는 更年期 骨多孔症과 關聯된 辨證으로는 肝腎陰虛證, 心腎陰虛證, 脾腎陽虛證, 肝氣鬱結證, 腎虛肝旺證이 있다. 肝腎陰虛證은 腰膝痠疼, 五心煩熱, 口乾咽燥, 耳鳴, 眩暈, 不眠, 抑鬱, 易怒, 眼疲勞, 眼球乾燥感, 舌質紅乾, 脈細數이며, 心腎陰虛(心腎不交)證은 五心煩熱, 口乾, 盜汗, 腰膝痠疼, 不眠, 動悸, 心煩不安, 多夢, 易驚, 舌質紅苔薄, 脈細數이며, 脾腎陽虛證은 腰膝冷痛, 形寒肢冷, 性慾減退, 大便溏泄, 五更泄瀉, 舌質淡苔薄, 脈沈遲弱 等이 나타나며, 肝氣鬱結證에서는 抑鬱易怒, 不安焦燥, 不眠, 胸脇脹滿, 小腹脹痛, 乳房脹痛, 肩痛, 腰痛, 神經痛, 梅核氣, 舌淡苔白, 脈弦 等이 있으며, 腎虛肝旺證의 症狀은 經來量少色淡, 或淋漓不淨, 頭暈耳鳴, 心煩易怒, 腰膝酸軟, 口燥咽乾, 舌紅少苔, 脈細數 等이 있다.

更年期에 나타나는 症狀중, 骨多孔症은 骨粗鬆症이라고도 하는데 代謝性 骨疾患中 가장 흔하며,<sup>20,5,4)</sup> 骨質量的 全般的인 減少를 일으키는 疾患으로서, 無機質化 組織의 持續的인 減少로 皮질골은 얇아지며 골소주의 數量과 크기가 減少하게 되어 外部에서의 작은 衝擊으로도 쉽게 骨折될 수 있는 狀態가 된다.

骨多孔症을 韓醫學的으로는 “腎主骨”이라하여 臟腑中 腎과 關聯을 두고 있는데 ‘骨痿’ ‘骨極’ ‘骨痺’ ‘骨寒’ ‘骨熱’ ‘骨痛’ ‘骨傷證’ ‘骨病外證’ ‘骨絕證’ ‘腎虛腰痛’ 등이 이에 해당된다. <素問. 六節臟象論>에 “腎主骨 故其充在骨也”라 하였고, <素問. 五臟生成篇>에 “腎主合骨也, 腎藏精而主水 故所合在骨”이라 하였는데, 즉 骨은 腎에 屬하고 腎은 骨을 主管하며 腎의 合은 骨이다.<sup>6)</sup> 또 <素問 宣明

五氣篇>에 “腎藏精髓而注於骨 故所主在骨”이라 하였는데 骨은 髓를 藏하는 府며, 髓는 腎에 所藏된 精氣가 變化하여 生成되어서 骨空을 充填하는 것인 바, 髓가 虛하면 骨도 역시 虛해지며 髓는 骨格을 滋養하므로 骨格의 生長과 機能은 腎氣의 盛衰에 따라 決定된다.<sup>6)</sup>

腎은 藏精 生髓 및 養骨作用이 있으므로 腎虛하면 腎精이 不足해짐에 따라 骨과 髓가 失養되므로 骨病이 發生한다. <素問 逆調論>에는 “腎不生則髓不能滿 故寒甚至骨也”라 하고, <素問 痿論>에서는 “腎者 水藏也 今水不勝火 則骨枯而骨虛 故足不任身 發爲骨痿”라고 하면서, 痺痿 厥과 같이 骨에 나타나는 病變의 根源은 腎虛임을 말하였다.

또한 腎精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虛弱해지거나 減少되므로 老人일수록 骨病이 많이 나타난다. 이때문에 退行性 骨關節炎이라든가 骨多孔症 등의 病因이 비록 많다고 하여도 핵심은 “腎虛”하여 養骨할 精이 不足한 것이다.

腎과 骨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를 보면, 許등은 腎虛組의 骨礦面密度가 無腎虛組에 비해 顯著히 下降하고, 蔡등은 腎虛證群의 骨礦物質含量은 非腎虛證群 및 對照群에서 뿐만 아니라 같은 病種의 非腎虛證群 사이에도 顯著히 낮았다고 報告하였고, 遲등은 45歲 前에 閉經된 女性의 骨密度는 45歲 後에 閉經된 女性보다 낮았다고 하여 閉經이 빠를수록 그 骨密度는 낮고 腎虛證이 뚜렷하다고 하였다.<sup>4)</sup>

따라서 女性의 天癸가 竭하는 閉經期에 이르면, 腎氣가 점점 衰弱해짐으로 腎精이 虛少하고 精은 髓를 生하지 못하며 髓가 生化之源을 잃게 되고 骨格을 營養하지 못하여 骨髓가 空虛해져서 骨多孔症이 發生하게 된다.

그러나 骨多孔症은 骨折이 되기 前에는 그 症勢가 確然히 드러나지 않고, 初期에는 단순한 疲勞를 呼訴한다거나 脊椎部位의 나른함을 呼訴하는 程度에서 부터 시작해 肩胛痛 腰痛 膝酸軟痛 등의 症狀程度를 나타내므로, 更年期時 女性이 느끼는 여러가지 症狀속에서 骨多孔症이라고 볼 수 있는 部分은 漢方 古文獻上 ‘天癸過期’ 또는 ‘過期不止’ ‘老年行經’ 및 ‘四十六七經證’ ‘四九五旬經證’ ‘五旬以後經證’과 關聯이 있었으며, 그 症狀은 腰腹疼痛, 腰痛, 偏身作痛, 腰膝痠軟, 肢冷, 腰痠腿軟, 尾骨痛 또는 알수 없는 神經痛, 疼痛, 肩痛 腰痛 神經痛,

腰膝痠疼, 腰膝痠冷으로 表現되어 있다.

骨多孔症은 骨의 造成成分에 變化가 있는 것이 아니고 單位容積에 들어있는 骨의 量이 정상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다시말해 骨形成은 減少되고 骨吸收가 增加되어 골기질의 減少로 인한 骨質量의 減少로, 骨質量이 全般的으로 減少함으로 생기는 疾患이다.

骨多孔症에 잘 걸릴 수 있는 危險群은 女性, 白人, 아시아인, 閉經, 早期閉經, 非外傷性 骨折, 非活動, 甲狀腺 機能 亢進症,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服用, 왜소증, 마른체격, 骨多孔症의 家族歷, 적은 칼슘攝取, 알코올 飲酒, 담배, 副甲狀腺 機能 亢進症, 胃切除 患者등이다.<sup>24)</sup>

骨多孔症을 分類<sup>22,42)</sup>해보면 크게 原發性 骨多孔症과 續發性 骨多孔症으로 나누는데, 續發性 骨多孔症은 內分泌性, 甲狀腺 및 副甲狀腺 機能 亢進症, 쿠싱症候群, 末端肥大症, 妊娠, 性腺機能 低下症이나 營養不良으로 인한 경우이고, 原發性 骨多孔症은 Type I 인 閉經後 骨多孔症과 Type II 인 老人性 骨多孔症이 있다.

그 中 여기에서 다른 것은 Type I 인 閉經後 骨多孔症으로, 호르몬 특히 Estrogen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즉 閉經後 骨多孔症에서는 卵巢機能의 衰退로 Estrogen缺乏이 일어나고 Calcitonin의 分泌는 低下되고 活性形 Vitamin D의 水準이 低下되는 반면 副甲狀腺 호르몬은 높아지게 되어 호르몬의 均衡이 깨어진 狀態가 된다. 그렇게 되면 骨吸收는 促進되고 骨形成은 惡化되는 狀態가 되어 骨多孔症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閉經後 骨多孔症은 주로 해면골로 구성된 脊椎뼈나 橈骨의 圓위부의 骨消失로 인해 사소한 衝擊에 의해서도 脊椎骨折이나 Colles骨折을 일으킨다.

이러한 危險을 지닌 骨多孔症을 判斷하려면, 骨密度를 測定<sup>23,26)</sup>해야 하는데 우선, 疼痛(腰背痛)과, 身長의 減少程度와, 骨折의 發生率 程度의 臨床症狀을 보고, X선학적으로 胸腰椎體의 骨量을 보는 伊丹指數, 大腿骨 近位部 骨量을 보는 Singh指數, 중수골 지수, DEXA라는 양에너지 방사선 骨密度 測程器, QCT라는 정량적 컴퓨터 骨密度 測程器를 활용하거나,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方法으로 SPA(단광자 骨密度 測程器)나 DPA(양광자 骨密度 測程器)가 있다. 이중 DEXA는 骨密度 測定裝置중 가장 最近에 開發되어 급격히 보급



되는 方法으로서 저에너지와 고에너지 두개의 에너지를 利用하여 骨密度를 測定하는 점에 있어서는 DPA와 原理가 같지만 다른 점은 에너지원으로 동위원소를 使用하지 않고 X-ray를 發生시켜 使用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DPA에 비해 훨씬 Photon flux의 量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檢査時間이 짧고(脊椎:4분, 全身: 15분) Precision이 좋으며 동위원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長點을 갖고 있어 近來에 와서는 많이 使用되고 있다.

骨多孔症의 治療는, 骨密度가 낮은 사람과 骨吸收率이 낮은 사람을 對象으로 하며, 洋方 治療藥物<sup>23,27,26,42)</sup>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骨吸收 抑制劑인 에스트로겐(Estrogen)과 칼시토닌(Calcitonin) 등이고, 다른 하나는 骨形成刺戟劑로 불소가 이에 속한다.

이중 現在 處方되고 있는 骨多孔症에 대한 洋方 藥劑中에서 가장 확실한 效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Estrogen이나, 長期間 治療가 必要하며 臆出血, 帶下增加, 乳房痛 등의 경미한 副作用외에 子宮內膜癌과 乳房癌의 發生率을 높인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한편 칼시토닌은 比較的 安全하며 骨多孔症에 同伴된 鎮痛效果가 뛰어나서 많이 使用되고 있다. 특히 老人性 骨多孔症에 隣伴된 腰痛의 改善에 效果가 있는데 投與 2주以內에 腰痛이 好轉되는 境遇가 많다. 그 以外 비타민 D와 칼슘 불소 등이 있고, 最近에는 새로운 治療方法으로 ADFR 療法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藥物을 時期를 놓치지 않고 連續的으로 投與하는 連續治療法으로서 평소 쉬고 있는 상태에서 骨組織을 한 번깨우고(Activation) 그 結果 發生하는 骨吸收作用을 抑制(Depression)시킨 다음 藥의 使用을 中斷(Free) 하면 自然的으로 骨形成이 이루어 진다. 이것을 反復(Repeat)하는 方法은 Remodelling의 特性을 利用하고자 하는 점에 意義가 있고 종래에 없는 劃期的인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骨多孔症의 韓方治療로는, <中醫 骨病學><sup>38)</sup>에서는 脾氣虛와 腎陰虛의 二型으로 分類하고, 脾氣虛型은: 飲食不節하여 脾胃를 損傷하여 오래되면 脾胃의 機能이 점차 衰弱해져서 水穀精微의 化生과 氣血의 生長에 影響을 미쳐 內로는 五臟六腑를 調節하지 못하고, 外로는 營衛經脈을 營養하지 못하여 나이가 들면서 體弱하고 肢體가 無力하여 움직이지 못하여 本病이 發生한다고 보았다. 주로 萎

芩白朮散 加減을 使用하되 飲食不消하고 胃脘部가 不快한 자는 山查, 厚朴, 陳皮를 加하였다. 腎陰虛型은: 腎은 精을 主管하여 骨을 充實하게 하는데 腎陰이 不足하면 骨이 充滿하지 못하여 骨格이 酸痛하고 甚하면 骨折이 招來된다고 보았다. 治療는 滋陰壯骨하여야 하는데 左歸丸加減을 使用하였고, 陰虛火旺之症이 明顯한 者는 知柏地黃丸을 合用하고, 또한 鱉甲, 鹿茸, 紫河車 등을 加하여도 좋다. 이 두가지 型 以外에도 오래 病床에 있으면 腎氣를 損傷하고 氣血虧虛하여 衛氣가 不固하게 되어 外邪가 侵入하면 점차 本病이 發生한다고 보았다.

<中醫 傳統 康復 醫學><sup>37)</sup>에서는 骨粗鬆症으로 인한 腰背酸痛, 兩膝酸軟이 腎精不足에 起因한 것으로 보아 腎陰虛型和 腎陽虛型으로 分類하였다. 腎陰虛型은: 腰背酸痛, 兩膝酸軟의 主症以外에 五心煩熱, 升火烘熱, 口燥舌乾, 舌紅乾剝, 脈細數無力 등의 兼症이 나타난다. 마땅히 壯水之主하고, 左腎의 元陰을 培養하여야 한다고 하여 左歸丸을 使用하였고, 陰虛火旺의 症勢가 나타나는 者에게는 大補陰丸이나 大造丸을 使用하였다. 다음 腎陽虛型에는: 畏寒肢冷, 面目虛浮, 性慾減退, 大便溏薄, 舌淡苔白, 苔潤, 脈沈細 등의 症狀이 腰背酸痛, 腰膝酸軟과 함께 나타난다. 치료는 右歸丸을 使用하고, 만약 陽絕肢冷, 少氣減食, 腰疼脚疼, 舌淡脈遲者는 意當 壯元氣하고 益陽寧하고 下氣消食해야 하며 鍾乳丸을 使用한다. 이미 骨折이 發生한 患者에 있어서는 消瘀接骨藥膏를 外포하며 동시에 健步虎潛丸을 內服한다.

<山東中醫學院學報>에서 蔡<sup>39)</sup>도 역시 腎陰虛와 腎陽虛로 分類하였으며, <常見病最新療法><sup>40)</sup>에도 骨粗鬆症에 대하여 腎陰虛型和 腎陽虛型 腎陰陽兩虛로 分類하였다. 腎陰虛型은: 腰膝酸痛 或關節酸痛以外에 急躁易怒, 眩暈耳鳴, 少寐健忘, 煩熱盜汗, 髮脫齒搖, 舌乾而乾少苔, 脈細數 등의 症狀이 隨伴된다. 마땅히 調補肝腎, 滋陰壯骨해야 하며 保陰煎加減을 使用하고, 顏面紅熱汗出 大便乾結者는 黃芩 山梔 黃柏 知母를 각각 10g씩 加味하고, 心悸少寐者는 生龍骨 牡蠣 各20g 合歡皮 夜交藤을 각 6g씩 加味한다. 腎陽虛型에는: 腰膝酸軟無力, 腰酸或足根痛 등의 主症以外에 肢冷畏寒, 面色蒼白, 面足虛浮, 夜尿頻多, 尿後餘瀝或失禁, 舌淡苔白, 苔潤, 脈沈細而弱 등이 나타난다. 溫補脾腎하고 溫陽壯骨하여야 하는데 處方으로는 右歸丸加減을 이용한다.

만약 骨痛節重하고 陰虛寒濕痺者是 川斷 牛膝 10g 羌活 獨活 각 20g으로 通痺止痛한다. 腎陰陽兩虛型的 경우는: 病勢가 緩慢하게 發生하고 腰背疼痛이 夜重日輕하고 或背部肌肉僵板하거나 或은 骨折되고 下肢痿軟少力하고 足根痛, 髮脫齒落, 耳鳴心悸, 舌淡蒼白, 脈沈或尺脈弱 등이 수반되는 것으로 鑑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治法은 補益肝腎하고 滋陰壯骨해야 하는데 處方으로는 虎潛丸加減을 使用한다. 熱象이 있는자는 乾薑 鎖陽을 去하고, 面色萎黃 乏力心悸 脈細弱者는 黃耆 丹蔘 鷄血藤을 加한다.

<東醫 再活醫學科><sup>6)</sup>에서는 腎陽不足型, 腎陰不足型, 氣血兩虛型, 風邪偏勝型 4가지로 分類하고, 腎陽不足型은: 腎陽이 不足하면 骨이 寒冷하고 骨節이 痺痺하며 化生하지 못하므로 患部가 濕冷하면서 水腫 汗毛脫落하고 指甲이 脆弱하다. 形寒肢冷 神疲倦怠 面色蒼白 腰膝痠冷 四肢痿軟不用등의 症狀이 있고 舌淡蒼白하며 脈은 沈細無力하다. 老人體衰한 경우 잘 나타난다. 治法은 補腎壯陽하고 處方은 補腎丸 或은 右歸丸에 加減한다. 다음 腎陰不足型에서는: 腎陰이 不足하면 腎이 骨을 生養하지 못하니 髓가 充滿되지 못하여 즉 腦髓가 空虛해져서 나타난다. 또 血液은 全身의 組織과 機關을 순행하는 바 血液中的 惡血이 骨髓에 착상하거나 運行이 저塞하면 發症하고 또한 濕痰物이 骨緣에 結合하면 本病이 生한다고 하였다. 患部가 發熱作痛하고 關節強硬등의 症狀이 있다 形體가 消瘦하면서 腰膝痠軟 健忘失眠 眩暈耳鳴 五心煩熱 盜汗觀紅 咽乾腎燥등이 있고 舌紅少苔하며 脈은 細數하다 臟腑失調와 호르몬의 障礙시 잘 나타난다. 治法은 滋陰補腎하고 處方은 六味地黃丸 或은 左歸丸에 加減한다. 氣血兩虛型은: 患部の 腫脹과 壓痛, 少氣懶言 四肢痿軟 乏力自汗 面色蒼白 心悸失眠등의 症狀이 있고 舌淡蒼白하며 脈은 細弱하다 營養不良으로 인한 境遇가 많다. 주로 補益氣血하여야 하고 處方은 八珍湯, 理氣補血湯에 加減한다. 風邪偏勝型은: 患部가 腫脹하면서 紅斑이 나타날 수 있다 流注性 關節腫痛을 호소하고 밤보다는 낮에 甚하다. 關節의 屈伸이 困難하고 痿軟無力하다 舌苔가 薄白하고 脈은 浮하다. 治法으로 去風通絡하고 處方으로는 防風湯이나 如意通聖散에 加減하였다.

그러나 骨多孔症의 大部分은 病因이 複合의으로

얼려 發生되는 更年期的 筋萎縮症候群이기 때문에 한가지의 治療法이나 한가지 藥劑로 治療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다. 먼저 病의 原因을 찾아내고, 그 病因이라고 생각되는 因子의 除去가 필요한데, 日常生活에서 實行할 수 있는 治療法으로, 첫째 日常的으로 活動性を 높이는 일 예를 들면 運動을 꾸준히 하는 것과, 둘째 햇빛을 많이 쬐는 것과, 셋째는 갈증이 많은 食事を 하는 것이다. 특히 骨吸收가 夜間 就寢時에 生길 可能性이 높으므로 夜間 就寢前에 우유를 1컵 가득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以上的 運動, 日光, 칼슘 攝取를 日常生活에서 항상 지키고, 여기에 藥物療法을 追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 現在까지는 이미 進行된 骨多孔症을 原狀으로 回復할 수 있는 效果의인 方法이 없기 때문에 骨折이 되기 以前에 뼈를 튼튼히 하여 女性의 境遇에 閉經期나 그 以後에도 健康한 삶을 維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最善의 方法이라고 생각한다.

#### IV. 結 論

更年期 障病中 骨多孔症에 關한 韓方과 洋方의 文獻을 調査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女性에 있어서 更年期는, 卵巢機能의 衰退로 인하여 生殖能力을 가진 時期에서 非生殖期로의 轉換期로 이 時期에는 여러가지 內分泌學的 身體的 및 精神的 變化가 나타나게 된다. 更年期에 나타나는 症狀은 一般的으로, 卵巢機能 低下에 依한 호르몬의 缺乏으로 因한 血管運動系 症狀과, 情緒的 障病, 性的 症狀, 그리고 腰痛, 肩胛痛, 四肢痛 및 關節痛 등의 筋骨格系 症狀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특히 오랜기간의 에스트로겐 減少와 관련된 閉經期 後期 症狀인 骨多孔症은 臨床上 큰 比重을 차지한다.

2. 更年期 障病은 腎虛가 主된 病症이나, 臨床上 腎虛型과 肝氣鬱結型 두가지 病症으로 볼 수 있으며 腎虛型에는 肝腎陰虛, 心腎陰虛, 脾腎陽虛가 있고 氣滯型에는 肝氣鬱結 心脾兩虛 肝火上炎 肝風內動 등이 있다. 月經異常型에는 肝鬱脾虛와 腎虛 肝旺으로 나눌 수 있는데 肝鬱脾虛證은 다시 肝鬱 氣滯 氣滯血瘀 脾虛不攝으로 細分할 수 있다. 이

증 肝腎陰虛證, 心腎陰虛證, 脾腎陽虛證, 肝氣鬱結證, 腎虛肝旺證이 여기에서 살펴본 更年期 骨多孔症과 聯關된 辨證에 해당된다. 즉 肝腎陰虛證은 腰膝痠疼으로, 心腎陰虛(心腎不交)證도 腰膝痠疼으로, 脾腎陽虛證은 腰膝冷痛, 形寒肢冷으로, 肝氣鬱結證에서는 肩痛, 腰痛, 神經痛으로, 腎虛肝旺證에서는 腰膝酸軟으로 표현하였다.

3. 更年期에 나타나는 變化중, 骨多孔症은 骨의 化學的 造成에는 變化가 없고 單位容積內的 骨量만 減少하는 疾患으로 代謝性 骨疾患 中 가장 흔하며, 閉經期 前後에 卵巢를 除去한 女性에게 에스트로겐을 投與한 臨床實驗에서, 骨多孔症의 發生이 적고 閉經期 以前の 性腺機能 患者에 있어 骨密度가 유의성 있게 減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閉經以後의 骨多孔症 發生은 卵巢機能의 衰退 및 에스트로겐의 缺乏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4. 東洋醫學 古文獻上에는 更年期 障礙라고 직접 表現된 部分도 없거니와 骨多孔症이라는 病症은 더욱 찾을 수 없다. 그러나 骨多孔症이 '腎主骨'의 學說로 보면 腎氣가 虛해지는 時期에 나타나는 病症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女性의 腎氣가 衰退하는 更年期와 關聯이 깊다.

5. 그러나 骨多孔症은 骨折이 되기 前에는 그 症勢가 確然히 드러나지 않고 肩胛痛 腰痛 膝酸軟痛 程度의 症狀을 나타내므로, 更年期時 女性이 느끼는 여러가지 症狀속에서 骨多孔症이라고 볼 수 있는 部分은 韓方 古文獻上 '天癸過期' 또는 '過期不止' '老年行經' 및 '四十六七經證' '四九五旬經證' '五旬以後經證'과 關聯이 있었으며, 그 症狀은 腰腹疼痛, 腰痛, 偏身作痛, 腰膝痠軟, 肢冷, 腰膝腿軟, 尾骨痛 또는 알수 없는 神經痛, 疼痛, 肩痛 腰痛 神經痛, 腰膝痠疼, 腰膝痠冷으로 表現되어 있다.

6. 骨多孔症의 原因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결국 '腎虛'하여 생기는 것이며 특히 女性에 있어 更年期 以後 나타나는 骨多孔症은 '腎虛'의 바탕위에서 Estrogen이나 Androgen같은 性호르몬의 缺乏이 要因이 되어 나타난다.

7. 骨多孔症을 分類해보면 크게 原發性 骨多孔症과 續發性 骨多孔症으로 나누는데, 原發性 骨多孔症은 Type I인 閉經後 骨多孔症과 Type II인 老人性 骨多孔症이 있다. 그中 여기에서 다른 것은 Type I인 閉經後 骨多孔症으로, 호르몬 특히

Estrogen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즉 閉經後 骨多孔症에서는 卵巢機能의 衰退로 Estrogen缺乏이 일어나고 Calcitonin의 分泌는 低下되고 活性形 Vitamin D의 水準이 低下되는 반면 副甲狀腺 호르몬은 높아지게 되어 호르몬의 均衡이 깨어진 狀態가 된다. 그렇게 되면 骨吸收는 促進되고 骨形成은 惡化되는 狀態가 되어 骨多孔症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8. 骨多孔症의 治療는, 骨密度가 낮은 사람과 骨吸收率이 낮은 사람을 對象으로 하며, 現在 處方되고 있는 骨多孔症에 대한 洋方 藥劑中에서 가장 확실한 效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Estrogen이나, 長期間 治療가 必要하며 膾出血, 帶下增加, 乳房痛 등의 輕微한 副作用의에 子宮內膜癌과 乳房癌의 發生率을 높인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등의 限界가 나타나므로, 韓方의인 治療를 導入하는 것이 重要하다.

9. 骨多孔症의 韓方治療로는 學者에 따라 脾氣虛型, 腎陰虛型, 腎陽虛型, 腎陰陽兩虛型, 氣血兩虛型, 風邪偏勝型으로 나누어 辨證施治하나, 共通되는 辨證은 結局 '腎陰虛' 또는 '腎陰不足'과 '腎陽虛' 또는 '腎陽不足'이었다. 腎陰虛는 滋陰壯骨, 調補肝腎, 滋陰補腎하는 治法을 쓰고 左歸丸加減, 保陰煎加減, 六味地黃丸에 加減하였다. 腎陽虛는 溫補脾腎, 溫陽壯骨, 補腎壯陽하는 治法을 쓰고 右歸丸加減, 補腎丸 或은 右歸丸에 加減하였다.

## 參考文獻

1. 宋炳基: 漢方婦人科學, 서울, 杏林出版, pp32-40, 193-196, 1978.
2. 羅元愷: 腎氣天癸衝任의 深討 及 基與婦科의 關係, 上海中醫雜誌, NO1, pp 11-13, 1983.
3. 申天浩: 問答式 婦人 小兒科學, 서울, 成輔社 pp145-146, 1992.
4. 朴鍾徵: 左歸飲과 右歸飲이 卵巢摘出 白鼠의 性호르몬과 脂質 및 骨代謝에 미치는 影響, 大韓漢方 婦人科學會誌, Vol 8 No1 1-27, 1995.
5. 杜鎬京: 東醫 腎系學, 서울, 東洋醫學 研究院, pp578-584, 1240-1253, 1992.
6. 全國漢醫科大學 再活醫學科教授室篇: 東醫再活醫學科學, 書苑堂, pp26-37, 48, 181-184, 1995

7. 姜明孜: 臨床婦產科學, 서울, 成輔社 pp148-152, 1986.
8. 李種華, 朴炳烈: 標準 漢方婦人科, 서울, 醫藥社 pp46, 1979.
9. 羅元愷, 唐吉父: 醫林189호, 서울, 醫林社 pp65-66 1989.
10. 李京燮: 圖解 臨床婦人科學, 서울, 書苑堂 pp141, 144-145, 1987.
11. 朴賢淑: 更年期 障礙에 관한 文獻의 考察, 大韓 漢方婦人科學會誌 第6卷 第1號, pp77-86, 1993.
12.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p278-296, 1994.
13. 金定濟: 診療要鑑 上, 서울, 東洋醫學 研究院, pp416-417, 1983.
14. 大韓 產婦人科學會: 婦人科學, 부산, 現代醫學書籍社, pp40-45, 63-68, 852- 871, 1987.
15. 李珍鏞: 更年期 內分泌學, 大韓產婦人科學會誌 Vol 28 No 4, pp443-445, 1985.
16. 盧榮澈: 更年期, 大韓產婦會誌 Vol 21 No 10, pp829-833, 1978.
17. 송찬호: 閉經期와 女性疾患, 가정의, Vol 8 No 3, pp1655-1659, 1987.
18. 金禮實: 月刊 臨床藥學(更年期 障礙), 서울, 月刊 臨床藥學社, pp50-53, 1986.
19. 유한기, 유경자: 폐경전기 여성의 월경주기 중 혈중 뇌하수체 호르몬과 난소호르몬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 산부인과학회, Vol 28 No 11, pp1537-1546, 1985.
20.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 위원회: 부인 과학, 서울, 칼빈서적, pp309-336, 1991.
21. 김병창: 폐경기여성에서의 증상, 지질변화 및 호르몬 변화에대한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Vol 31 No 6, pp784-794, 1988.
22. 민헌기: 임상 내분비학, 서울, 고려의학, pp220-222, 415-421, 489-498, 1990.
23. 최영길: 내분비학, 의학출판사, pp483-490, 573-580, 1994.
24. 대한 병리학회: 병리학, 고문사, pp1183-1185, 1991.
25. 이병철: X선 진단의 Approach ㉞골, pp112, 130-131, 182, 1992.
26. 대한의사협회: 폐경과 골다공증, 대한의학협 회지 1992년 5월호, p587-597, 1992.
27. 김영철: 골다공증의 약물치료, 서울 제44회 대한내과학회 추계학회, pp50-53, 1992.
28. 許叔微: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 出版社, p145, 1978.
29. 陣夢雷: 醫部全錄, 서울, 大星文化社, 8卷 pp665-680, 15권 p10, 19, 1989.
30. 李挺: 編註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pp1592-1594, 1990.
31. 陳自明: 婦人良方大全, 文光圖書有限公司, 1卷 p38, 1987.
32. 蘇頌: 女科經綸, 江蘇科學技術 出版社, p35, 1986.
33. 葉天士: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pp212-213, 1989.
34. 武之望: 濟陰綱目, 大城出版社, p9, 1989.
35. 羅元愷: 中醫婦科學, 河北省, 人民衛生 出版社, pp17-22, 161-163, 1988.
36. 楊蘊祥外: 古今名方, 河南, 河南科學技術 出版社, p153, 1986.
37. 陳可培: 中國傳統康復醫學, 北京, 人民衛生 出版社, pp555-558, 1988.
38. 藏位歷, 王和鳴編: 中醫骨病學, 北京, 人民衛 生出版社, pp249-258, 1990.
39. 蔡新吉: 腎虛證與 骨密度含量的 關係, 山東, 山東中醫學院學報 16:2, p52, 1992.
40. 呂執政: 常見病 最新療法, 北京, 中國中醫學 出版社, pp371-373, 1994.
41. 國際韓醫學 學生會: 東洋醫學 叢書, 7卷, pp86-89, 一中社, 1990.
42. 徐舜圭: 成人病 老人醫學, pp483-486, 고려 의학, 1993